

무용수가 인지하는 객체화 신체 의식 분석

김정숙

부산대학교 강사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1. 서론

신체는 유기체로서 물질의 집합이면서도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개인의 존재가 물질화 또는 체화(embodiment)한 것이며, 사회적 동물로서 개인이 어떤 종류의 사회적 존재인지를 표현해내는 수단이다¹⁾. 이러한 신체는 자기 신체의 의미 즉, 우리가 우리자신의 몸을 관리하고 통제하며 느끼고 경험하는 방식을 결정짓는 것으로서 인간이 자신의 개인적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을 갖는데 중요하며 한 개인이 자기의 신체가 하나의 물질로서 시공간을 지속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생각을 기초로 사회적 존재로서 자신이 어떤 몸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몸이 타인에게 어떻게 보여 지는지를 토대로 한다.

신체의식(body consciousness)이란 신체를 하나의 심리적 경험으로 받아들일 때 언급되는 용어로서 자신의 신체에 대해 개인의 지각, 태도, 평가, 감정 및 반응을 포함하는 구성개념으로 자아(自我)나 적응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²⁾ 자아가 긍정적

1) Harre, R.(1991). *Physical Being: A Theory for a Corporeal Psychology*. Oxford: Blackwell.

2) 조지숙(1992). 청소년의 신체상, 신체적 매력, 신체상의 왜곡과 자아존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이면 신체의식도 긍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체의식은 사람이 라면 누구나 갖는 것으로 태동을 시작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성장하면서 성숙, 환경적 요소, 사회적 태도, 문화적 가치, 상해 그리고 질병 등의 신체변화에 따라 계속적으로 변화되는 역동적인 특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³⁾. 이러한 역동적인 특성으로 인해 신체의식이 변화되면 성격의 변화도 함께 일어나 자아상실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마다 독특한 신체의식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 수준이 높을 때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게 되며, 여기에는 자신의 신체크기, 기능, 잠재력 등에 대한 태도가 포함되어 있다⁴⁾. 신체적 자기-가치는 신체적 자기 영역에서 개인의 일반적 정신건강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으며⁵⁾, Sonstroem과 Potts⁶⁾은 신체적 자기-가치가 생애 적응력과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Sonstroem *et, al.*⁷⁾은 성인여성들의 신체적 컨디션과 무용 활동은 정적인 관계를 갖고 있으나, 신체 매력감과 무용 활동은 부적인 관계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즉 무용이 예술적 표현 활동이기는 하나 신체의 움직임음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신체활동이라는 점에서 무용수가 느끼는 자기신체에 대한 지각은 무용기교나 표현능력에 관여 될 수 있으며 전반적인 자기존중감을 상승시켜 성공적인 무용수행과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예상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⁸⁾. 무용수의 신체적 자기지각을 살펴본 고주혜와 김승재⁹⁾, 유진과 장귀옥

3) 황호선(1995). 치아교정장치를 한 청소년의 신체상 및 자기존중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4) Tucker, L. A.(1983). Obesity, exercise, somatotyp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 factor analytic study. *Journal of Human Measurement Studies*, 9, pp.189-194.

5) Fox, K. R. (1997). *The physical self*. (pp. 19-34).Champaign, IL: Human Kinetics.

6) Sonstroem, R. J. & Potts, S. A. (1996). Life adjustment correlates of physical self-concepts. *Medicine and Science in Sports and Exercise*, 21(3), pp.329-337.

7) Sonstroem, R. J., Halow, L., & Josephs, L. (1994). Exercise and self-esteem: Validity of model expansion and exercise associations. *Journal of Sport & Exercise Psychology*, 16, pp.29-42.

8) 성장훈, 유현경(2004). 청소년 무용 전공생의 신체적 자기지각 구성요인. 『한국체육학회지』 43(6), pp.909-917.

9) 고주혜, 김승재(2006). 무용전공대학생들의 신체적 자기지각이 신체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45(5), pp.199-210.

10), 유진과 김장우¹¹⁾ 등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자신의 신체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무용수들은 주어진 무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한다는 결론을 유출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무용수들의 신체의식이 긍정적일수록 무용수행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본 연구와의 비교분석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향후 무용수에게 신체에 대한 인식이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을 유추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실시되어진 객체화된 신체의식(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OBC)이란 여성들이 불가능한 문화적 신체표준을 내면화함으로써 이를 마치 자기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고 이런 표준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신념을 갖게 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이런 의식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신체경험의 가능성이 높다¹²⁾. 이러한 객체화된 신체의식은 신체에 대한 감시성, 문화적 신체표준의 내면화에 따른 자신의 신체에 대한 수치심, 신체에 대한 통제감의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신체감시성(body surveillance)이란 자신을 객체화하여 타인의 시선에서 자신의 신체를 감시하듯 바라보는 것으로 신체는 통제의 대상으로 자신의 신체를 문화적 기준에 맞추려 하고, 신체에 대한 타인의 부정적 평가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다. 신체수치심(body shame)은 문화적 신체기준은 이상적인 신체이미지를 보여주는 데 이는 여성들이 자기 신체를 비교하도록 만들어 문화적 신체기준을 내면화하게 되는 여성은 이 기준이 사회적 압력에 의한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스스로 기준을 형성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고 이 기준에 의해 끊임없이 자기 신체를 비교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기 신체에 대한 수치심을 경험하게 된다. 통제신념(control belief)은 자신의 외모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신념을 의미하는 것으로 내가 얼마나 내 외모를 사회에서 요구하는, 자신에게 내면화된 기준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신념이다. 이러한 객체화된 신체의식은 무용수들이 직면하는 몸의 이미지에 대한 심리적

10) 유진, 장귀옥(2003). 무용수들의 신체적 자기-지각 프로파일 분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4(2), pp.235-248.

11) 유진, 김장우(2003). 무용수의 신체적 자기-지각과 정신건강 프로파일분석. 『대한무용학회』 35, pp.217-230.

12) McKinley, N. M., Hyde, J. S.(1996). The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0, pp.181-215.

정체성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세 가지 하위요인들의 심층적 분석은 무용수들의 체계적인 신체의식의 이해를 도울 것으로 예측한다.

무용 수행 상황에서 한국무용, 발레 그리고 현대무용은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한국무용은 정신적이고 종교적인 측면에서 내향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발레는 해부학적이고 기하학적인 측면에서 외향적인 선을 강조하는 반면, 현대무용은 체계적인 동작의 기법보다 내적의미를 무제한적으로 활용하여 인간의 감정 및 사상 또는 삶의 표현방식을 강조 한다¹³⁾. 따라서 이러한 무용 특성의 이해와 함께 무용수들의 심리현상 측면에서 객체화된 신체의식 변인에 대한 분석은 추후, 무용수행의 질을 높이고 대학생활에서 더 나은 무용예술 학습을 할 수 있을 것이기에 본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바이다.

본 연구는 무용수들의 객체화된 신체의식 프로파일을 분석하고자 하며, 무용 수행에서 발생하는 무용수들의 신체의식(신체 감시성, 신체 수치심, 통제신념)을 무용 경력(저:3년 이하/고:5년 이상)과 무용전공(한국, 발레, 현대무용)에 따라 각각 비교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아가 무용경력과 무용전공을 유의하게 판별할 수 있는 객체화된 신체의식의 하위요인들을 추출하기 위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부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무용과 여대생 322명(한국무용 136명, 현대무용 97명, 발레 89명)을 추출하였으며, 기초배경조사 결과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1.34세(SD=5.28), 무용경력은 4.21년(SD=4.72)로 나타났다. 이 중 분석과정에서 조사내용이 누락되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11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최종 조사에서 무용전공 여대생 총 311명(한국무용 131명, 현대무용 92명, 발레 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부산광역시에 소재된 무용과 여

13) 김말복(1999). 『무용의 이해』(서울: 예전사), pp.29.

대생을 중심으로 연구되었음을 밝힌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객체화 신체의식 질문지(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OBC)는 MicKinley와 Hyde이 제작 개발하고 김완석 등¹⁴⁾이 번안하였으며, 전체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 개의 하위요인 신체 감시성, 신체 수치심과 통제신념으로 구분되었다. 신체 감시성 요인은 8문항(1-8번), 신체 수치심 요인은 8문항(9-16번), 통제신념 요인은 8문항(17-24)이며 검사지의 응답형태는 6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예비연구에서 OBC는 요인분석에서 변량의 43%를 설명하는 3가지 요인들로 나타났고, 검사-재검사 신뢰계수는 .64(신체 감시성), .69(신체 수치심), .79(통제신념)의 타당도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무용수들이 이해하기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OBC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는 다음의 <표 1>과 같이 나타났다.

<표 1> 객체화 신체의식 질문지의 하위척도에 대한 문항구성

	문 항 번 호	신뢰도계수	분 산 율
신체 감시성	1, 2, 3, 4, 5, 6, 7, 8	.637	20.362%
신체 수치심	9, 10, 11, 12, 13, 14, 15, 16	.689	22.016%
통제 신념	17, 18, 19, 20, 21, 22, 23, 24	.718	22.713%

3. 연구절차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무용교과와 지도교수/강사의 도움을 받아 자료수집이 이루어졌으며, 연구의 목적과 의의에 대한 간략 설명을 한 후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지하게 자신의 감정 상태를 답해줄 것을 요청했다. 자료응답은 20분간 소요되었다.

14) 김완석, 유연재, 박은아(2007). 한국판 객체화 신체의식 척도(K-OBCS):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26(2), pp.329-349.

4.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객체화 신체의식 질문지가 무용전공 여대생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요인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문항분석을 시행하였고, 이에 문항분석 결과 문항축소 및 삭제 그리고 요인구조의 타당화를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수행하여 객체화 신체의식의 요인구조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측정도구의 타당화 검증을 통하여 무용수들의 객체화 신체의식 프로파일이 무용경력과 무용전공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2×3 (경력 \times 전공) 이원 다변량 분산분석(two-way MANOVA)을 시행하였다. MANOVA에 대한 후속 분석(follow-up procedures)은 각 변인에 따른 일원변량분석(ANOVA)과 판별분석(discriminant analysis)을 사용하여 각 변인에 대한 집단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규명하였다.

III. 연구결과

1. MANOVA 분석결과

〈표 2〉는 객체화 신체의식 척도(OBC)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무용 전공(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과 경력(저:3년 이하/고:5년 이상)에 따라 조사한 결과이다. 무용전공과 경력이 어떻게 OBC(신체감시성, 신체수치심, 통제신념)에 전반적으로 효과를 미치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시행된 이원 MANOVA 결과 '경력'의 주효과에서 다

〈표 2〉 OBC의 평균과 표준편차

	한국(n=131)		발레(n=88)		현대(n=92)	
	저(n=63)	고(n=68)	저(n=41)	고(n=47)	저(n=53)	고(n=49)
	M(SD)	M(SD)	M(SD)	M(SD)	M(SD)	M(SD)
신체 감시성	2.89(.69)	3.27(.43)	3.71(.59)	3.94(.76)	2.09(.77)	2.43(.83)
신체 수치심	2.72(.56)	2.49(.52)	3.20(.67)	3.01(.38)	2.98(.54)	2.59(.61)
통제 신념	2.63(.47)	2.93(.78)	2.86(.81)	3.23(.37)	3.42(.76)	3.02(.63)

차원적 유의성을 보여주고 있다(Wilks' Lambda=.423, $F(3, 303)=11.151$, $p<.001$). '경력'에 대한 ES와 Power는 .104와 .915를 각각 나타내었다. '전공'의 주효과와 '경력' × '전공'의 상호작용 효과는 모두 유의성을 보이고 있지 않았으며, 이 결과는 OBC수준에서 전반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시사해 주고 있다. 나아가, '경력'과 '전공'의 상호작용 집단(저-한국, 저-발레, 저-현대, 고-한국, 고-발레, 고-현대)의 OBC 수준 역시 전반적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대학 무용수들의 OBC는 무용 경력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으나 전공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ANOVA 분석결과

OBC의 하위요인(신체감시성, 신체수치심, 통제신념)에 대한 '경력'의 주효과 ANOVA 검증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으며, '경력'에 따른 주효과는 '신체 수치심'을 제외하고 '신체 감시성', '통제신념'에서 유의성을 보이고 있었다. 이들에 대한 ES는 .008~.073을 보이고 있으며, Power는 .905~.157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경력에 따른 무용 집단의 신체 감시성과 통제신념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나, 신체 수치심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없다. 세부적으로 무용경력 저(3년 이하)집단은 낮은 수준의 신체 수치심을 보여주었고, 고(5년 이상)집단에서는 높은 수준의 신체 감시성과 통제신념을 나타내었다.

<표 3> 경력에 따른 주효과 ANOVA 결과

변 인	F	sig	Eta	Power
신체 감시성	9.022	.000	.073	.905
신체 수치심	1.701	.183	.008	.157
통제 신념	8.473	.000	.069	.814

<Eta: Partial Eta Squared/ Power: Observed Power>

3. 판별분석결과

OBC의 하위요인(신체감시성, 신체수치심, 통제신념)들이 경력에 따른 집단을 어

〈표 4〉 무용경력에 대한 판별분석 결과

변 인	계 수	집 단 분 류	
신체 감시성	.629		
신체 수치심	-.172		
통제 신념	.503		
		저(n=167)	78.9%
		고(n=164)	77.2%
		N=311	80.6%

는 정도 판별해 줄 수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하여 판별분석(discriminant analysis)을 시행하였으며,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는 표준화 판별계수와 분류표를 요약한 것이며, 표준화 판별계수(standardized discriminant coefficient)는 '신체 감시성'과 '통제신념'에서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40이상). 세부적으로 신체 감시성과 통제신념 요인이 무용수의 무용경력에 따른 수준을 판별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을 제시해 주고 있다. 특히, 신체 감시성은 무용경력에 따른 수준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예측자로 나타났다.

따라서 무용수들의 신체감시성(.629)과 통제신념(.503)이 무용 경력에 따른 집단을 유의하게 판별할 수 있는 OBC 요인이라는 사실이 발견된다. 특히, 무용수들에게 내적신체의식은 경력에 따른 집단수준을 가장 높게 예측해 주고 있다. 그러나, 무용수의 신체 수치심(-.172)은 경력에 따른 무용집단을 유의하게 판별시키지 못했다.

IV. 결론 및 제언

대학 무용수들의 객체화된 신체의식 프로파일을 무용경력에 따라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는 경력×전공 MONOVA 결과에 따르면, 대학 무용수들의 OBC는 무용경력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으나 전공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무용경력 저(3년 이하)집단은 낮은 수준의 신체 수치심을 보여주었고, 고(5년 이상)집단에서는 높은 수준의 신체 감시성과 통제신념을 나타내었다. 한편, OBC에 대한 판

별분석 결과는 신체 감시성과 통제신념 요인이 무용수의 무용경력에 따른 수준을 판별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을 제시해 주고 있다. 특히, 신체 감시성은 무용 경력에 따른 수준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예측자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지속적인 댄스스포츠 교육을 통해 신체의식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¹⁵⁾에서는 무용전공자가 비전공자에 비해 높은 신체의식을 인지한다는 사실을 밝혔고, 스포츠에어로빅 활동은 경력이 오래일수록 신체의식을 높게 인지하며¹⁶⁾, 여성 지체장애인들도 객체화된 신체의식을 높게 인지한다는 연구결과¹⁷⁾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 결과와도 일맥상통한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무용수에게 높은 신체의식의 인지는 무용수행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실제 무용수의 무용수행에 있어서 창의력을 요구하는 심리적 측면은 신체의 테크닉과 함께 무용 예술작품 형성에 중요하며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좋은 무용작품을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측면은 무용수의 심리 인지에서 기초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며 이를 위해서는 무용수의 신체의식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본 연구를 통해 무용수의 신체의식을 살펴본 결과, 전공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경력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고 무용경력이 오래일수록 객체화된 신체의식을 높게 인지한다는 사실을 나타냈다. 또한 OBC의 하위요인 중 신체 감시성과 통제신념이 무용경력에 따른 수준을 판별하는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

신체의식은 전체적 자기평가에서 중요한 현상으로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데 있어서 주체성, 자존심 그리고 자기가치의 근본이 되며, 인간의 심리상태 및 행동을 결정하는 지표가 되므로 인간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¹⁸⁾. 이

15) 박태경, 박주영(2003). 댄스스포츠 교육이 여중생들의 신체의식 및 신체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19, pp.939-953.

16) 오윤선, 백승욱, 박주영(2003). 스포츠에어로빅스 선수의 자아존중감과 신체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지』 19, pp.955-966.

17) 김정숙(2008). 여성지체장애인의 객체화된 신체의식 척도 분석. 『한국지체부자유아교육학회지』 51(4), pp.59-73.

18) Wassner, A.(1982). The impact of mutilating surgery or trauma on image. *International Nursing Review*, 29(3), pp.87-97.

러한 신체의식은 내적 신체감각에 대한 인식과 신체외모에 대한 개인차에 관련된 것이며, 인간 형상을 위한 근거, 어떤 주어진 맥락에서 대인간의 상호작용을 위한 가이드로서 이용 가능한 가장 직접적이고 독특한 특성이다. 실제로 신체적 의식은 인성이나 사회적 특성들의 귀속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되고 차별적인 상호작용과 산출에 관련되며 자아지각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¹⁹⁾.

이에, 신체 움직임의 미적표현수준이 주관적으로 평가되는 무용 수행은 신체에 대한 미적 또는 기능적 개념의 발달을 필연적으로 요구하는데, 이는 자신의 신체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무용수들은 주어진 무용 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하여 성공적인 수행을 경험하게 되고 자신에 대한 존중감을 느끼며²⁰⁾, 무용수행에서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무용수들은 자신의 신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부정적인 감정과 스트레스를 통제하여 최적 수행을 위한 심리상태를 나타낸다는 것이다²¹⁾. 이러한 맥락에서 무용수에게 신체에 대한 관심과 이미지는 중요한 요소이며 좋은 무용수행에 대한 매개체에 초점하여 무용수가 인지하는 신체에 대한 연구는 무용수의 심리, 사회, 생리, 생물학적 메카니즘을 통하는 과학적 탐색이라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결과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여자무용수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므로, 차기 연구에서는 남성으로 확대하여 연구 분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무용수의 세부적인 신체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신체에 대한 변인과 함께 다양한 심리변인의 관계성 연구를 통해 신체에 대한 심층적 분석 연구가 요망되는 바이다.

19) Cash, T. E. & Purzinsky, T.(1990). *Body Image: Development, deviance, and change*. NY: Guilford Press.

20) 장귀옥(2002). 무용수들의 신체적 자기-지각과 정신건강 프로파일 분석.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21) Morgan, W. P.(1980). The trait psychology controversy. *Research Quarterly for Exercise and Sport*, 51, pp.50-76.

■참고문헌

- 고주혜, 김승재(2006). 무용전공대학생들의 신체적 자기지각이 신체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45(5), 199-210.
- 김정숙(2008). 여성지체장애인의 객체화된 신체의식 척도 분석. 『한국지체부자유아교육학회지』51(4), 59-73.
- 김완석, 유연재, 박은아(2007). 한국판 객체화 신체의식 척도(K-OBCS):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26(2), 329-349.
- 김말복(1999). 『무용의 이해』 서울: 예전사.
- 김영미(2007). 무용참가가 비만과 신체의식 및 신체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1(1), 99-113.
- 김정숙, 표내숙(2006). 무용전공여대생의 수업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 관계분석. 『한국체육학회지』45(6), 291-299.
- 문익수, 박정근, 최만식, 서지영(1996). 스포츠심리검사지. 도서출판: 대한미디어.
- 박태경, 박주영(2003).댄스스포츠 교육이 여중생들의 신체의식 및 신체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19, 939~953.
- 장귀옥(2002). 무용수들의 신체적 자기-지각과 정신건강 프로파일 분석.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 조지숙(1992). 청소년의 신체상, 신체적 매력, 신체상의 왜곡과 자아존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성창훈, 유현경(2004). 청소년 무용 전공생의 신체적 자기지각 구성요인. 『한국체육학회지』43(6), 909-917.
- 유진, 김장우(2003). 무용수의 신체적 자기-지각과 정신건강 프로파일분석. 『대한무용학회』35, 217-230.
- 유진, 장귀옥(2003). 무용수들의 신체적 자기-지각 프로파일 분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14(2), 235-248.
- 오윤선, 백승욱, 박주영(2003). 스포츠에어로빅스 선수의 자아존중감과 신체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지』 19, 955~966.

- 황호선(1995). 치아교정장치를 한 청소년의 신체상 및 자기존중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Cash, T. E, & Purzinsky, T.(1990). Body Image: Development, deviance, and change. NY: Guilford Press.
- Harre, R.(1991). Physical Being: A Theory for a Corporeal Psychology. Oxford: Blackwell.
- McKinley, N. M., Hyde, J. S.(1996). The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0, 181-215.
- Morgan, W. P.(1980). The trait psychology controversy. *Research Quarterly for Exercise and Sport*, 51, 50-76.
- Fox, K. R. (1997). *The physical self*. Champaign, IL: Human Kinetics.
- Sonstroem, R. J. & Potts, S. A. (1996). Life adjustment correlates of physical self-concepts. *Medicine and Science in Sports and Exercise*, 21(3), 329-337.
- Sonstroem, R. J., Halow, L., & Josephs, L. (1994). Exercise and self-esteem: Validity of model expansion and exercise associations. *Journal of Sport & Exercise Psychology*, 16, 29-42.
- Tucker, L. A.(1983). Obesity, exercise, somatotyp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 factor analytic study. *Journal of Human Measurement Studies*, 9, 189-194.
- Wassner, A.(1982). The impact of mutilating surgery or trauma on image. *International Nursing Review*, 29(3), 87-97.

논문투고일	2009년	2월	28일
심사일		3월	4일
심사완료일		3월	25일

Abstract

Analysis of the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in Dancers

Jungsuk Kim

Lecturer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profile in female dancers. It was hypothesized that there would be significant differences in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as functions of dancer career(low: 3 years downward/ high: 5 years up) and dance major(Korean, Ballet, Modern).

Three hundred eleven female college dancers majoring in Korean, Ballet, Modern dance completed the Profile of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Questionnaire(OBCQ). The OBCQ included three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body surveillance, body shame, control belief.

The results of multivariate statistical procedures exhibited tha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OBCQ among Korean, Ballet, and Modern dancers. High career dancers reported more positive OBCQ than low career dancers.

These results were discussed with various psycho-social perspectives and interpreted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excessive physical activities might play a central role in mental health.

This work was based on the previous studies related to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keywords: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객체화 신체의식), body surveillance(신체 감시), body shame(신체 수치심), control belief(통제신념), dancer(무용수)